

모더니즘에 흠집을 내다...'땡땡이 화가' 김용익 개인전

November 22, 2016 | 권혜진 기자

page 1 of 3

"땡땡이는 항상 유행이지요. 저는 1990년대에도 땡땡이를 그렸는데 지금도 땡땡이를 그립니다. 다만 땡땡이의 해석은 달라졌지요."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는 김용익(69) 작가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개관 행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전시작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까지 일민미술관에서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진행한 그는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새 전시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전 전시가 지난 40여 년의 화업을 돌아보는 회고전 성격이라면 이번 전시는 그가 앞으로 추구할 방향을 가늠케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뚜렷하게 차별화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의외로 이날 전시장에서 확인한 작가의 최신 작업은 1980년대 말부터 꾸준히 탐구한 물방울무늬 그림인 '땡땡이'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다. 전시장에 걸린 캔버스는 각기 다른 사이즈와 배경색을 띠고 있지만 결국에는 원형 도상이 반복되는 형태여서다. 어떻게 보면 '땡땡이' 시리즈의 귀환인 셈이다.

홍익대 미대 재학 시절 단색화 거장인 박서보의 애제자로 손꼽히던 그는 단색화를 탈피해 모더니즘과 민중미술, 공공미술 등을 오간다. 화단이 뚜렷하게 나뉘었던 시절 그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한 작가가 선택한 작업이 '땡땡이' 시리즈였다.



김용익 작가의 '모더니즘의 묵시록' [국제갤러리 제공]

"그러나 캔버스 위 '땡땡이'의 모습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작가는 동료와 선후배 작가들이 전체주의처럼 모더니즘을 추구하던 시절, 모더니즘의 획일화된 경향에 반발하며 자신의 비판적인 생각을 은유하는 매개로 땡땡이를 활용했다. 이 때문에 당시 그의 땡땡이에선 이름과는 달리 사회적 주제에 대한 사유와 그만큼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번에 전시되는 신작에선 밝은 색조와 경쾌한 리듬감이 한눈에 전해지고 있다.

작가는 땡땡이 그림을 가리키며 "옛날에는 땡땡이가 '지우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작품 자체가 땡땡이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라졌다고는 하나 작가는 초기처럼 모더니즘 회화를 전복시켜보겠다는 의식을 견지했다.

그는 1층에 걸린 '모더니즘의 목시록'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소개하며 "제목부터가 모더니즘 미술을 전복시켜 모더니즘 문명의 종말을 보여주겠다는 거창한 의미에서 붙인 제목"이라고 설명했다.

격자무늬 위, 정확히 계산된 자리에 그려진 땡땡이는 모더니즘의 상징적 도상과 흡사하지만 작가는 캔버스 위에 구멍을 뚫거나 식물의 액즙을 바르는 식으로 모던한 이미지가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



김용익 개인전 전시 전경 [국제갤러리 제공]

실제 이날 전시작 중에는 작가가 집 부근에서 채취한 식물을 캔버스 위에 짓이기듯이 펴 바른 작품도 다수 포함됐다.

그는 이런 행위 또한 "정제된 미학을 추구하는 모더니즘 미술 위에 흠집을 내는 제스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거짓말의 여운 속에서', '얕게..., 더 얕게...', '20년이 지난 후', '유토피아' 등 30여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작가의 이런 시도는 작품 설치에서부터 드러난다. 전시장 벽면에 걸린 작품들은 가까이서 보면 하나같이 조명의 중심점에서 비껴있거나 한쪽 면이 벽면 모서리에 맞닿을 정도로 중심부에서 벗어나 설치됐다.

작가는 "조명과 디스플레이도 일종의 모더니즘적 권력 공간이다. 미술적 권력을 비틀고 흠집 내고자 일부러 이렇게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작가는 이런 작업을 '재전유'(re-appropriation)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창조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편집으로서의 예술이 요구되는 시대다. 따라서 나는 더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지 않고, 기존 작업을 재해석, 재구성, 재전유해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다음달 30일까지 계속된다.



김용익 작가